

2014 EAACI 참석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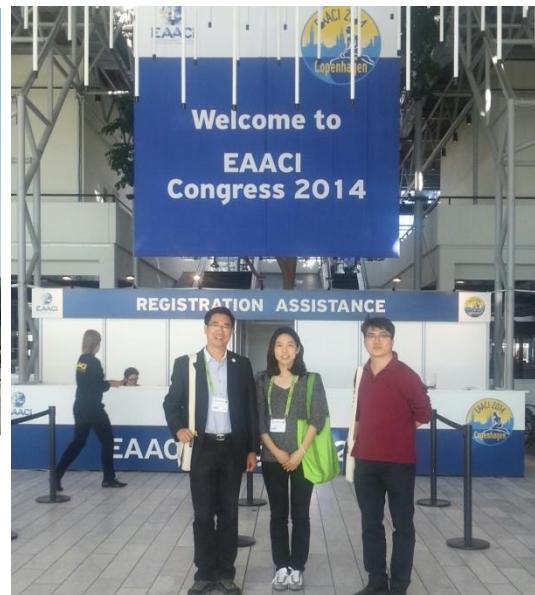
경북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김수정

2014년 EAACI가 6월 7일부터 11일까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회가 아니었다면 여행지로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이었고, 안데르센의 나라, 인어공주상 이외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학회 전이 늘 그렇듯, 떠나기 전 정리해야 할 업무들에 정신없이 보내다 간신히 비행기 안에서 읽을 여행 책자를 짐가방에 챙겨 넣고 작은 휴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특별한 기대 없이 찾았던 것이 무색할 만큼 학회가 끝나갈 즈음에는 덴마크에 대해 좋은 인상과 함께 아직 다 가보지 못한 북유럽의 다른 나라에 대한 동경도 커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학회에서의 학문적인 경험도 저의 이전의 해외학회들과는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코펜하겐에 도착한 첫날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라하를 경유해서 코펜하겐에 도착하여 설렘 반 피곤함 반으로 공항의 짐 찾는 곳에서 기다린 지 한참 후에야 제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분실점수를 해놓고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세면도구와 티셔츠 한장을 얻어서 늦은 밤 허탈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와서 쓰러졌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덕분에 학회 첫날과 둘째날은 한국에서 출국할 때 입었던 단벌에 원가 걱정스럽고 피곤한 얼굴로 학회장을 돌아다니며, 익숙한 선생님들을 만나면 하소연하고 조언듣기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날이 마침 제 포스터 발표날이었는데 포스터는 어디쯤 와있는지 알 수 없는 짐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자그마치 100유로를 들여 학회장에서 다시 출력을 했습니다. 무사히 따끈따끈하게 새로 인쇄된 포스터로 발표를 마치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보니 그토록 애타개 기다리던 짐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제서야 제대로 학회를 즐길 준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벨라센터 주변의 벨라스카이와 풍력 발전기 전경과 학회장 입구에서]



학회는 벨라센터(Bella center)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코엑스나 킨텍스와 같은 큰 회의장소에서 열렸는데, 바로 옆에 있는 서로 반대로 기울어져있는 쌍둥이 건물과 풍력 발전기가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이 쌍둥이 타워는 벨라스카이라고 하는 호텔인데 덴마크의 유명한 건축가가 디자인하고 건축상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하였는데 숙소를 예약할 때 가까운 위치를 보고 혹시나 하여 봤지만, 역시나 비싼 가격 때문에 포기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회장 내에서는 매일 Plenary 세션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일정표를 보고 또 들여다보고 무엇을 들을까? 고민해야만하는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관심을 끌었던 세션들은 주로 drug allergy 및 여러 알레르기 질환의 new treatment options 등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학회 둘째날 천식의 새로운 치료에 관한 year in review에서 neutrophil을 타겟으로한 치료 및 천식에서 항생제 치료의 역할, 그 밖의 다른 생물학적 제재의 치료제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논문을 통해 이미 여러 번 접해본 이슈들이었지만 대가들의 열정적인 강의와 서로 다른 나라의 여러 의사들이 모여 공통적인 고민으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들에 뭔지 모를 벅찬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중간 중간 poster discussion 세션을 돌면서 다른 연구자들의 발표도 들어보았는데, 제 눈에 들어온 딱 한가지는 바로 대형 Samsung 모니터였습니다. 한 무더기 청중이 모여서 진지하게 포스터 발표를 듣는 맨 앞에서 발표자가 열심히 모니터를 터치하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Samsung 모니터! 손으로 닿는 부위가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다 위치가 이동하는 등 현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다 보니 내용보다도 한국의 첨단기술이 세계사람들이 다 모인 이 큰 회의장에서 자랑스럽게 보여지는 모습에 더 큰 감동을 했다면 너무 솔직할까요?



[Poster discussion 세션에서
자랑스런 삼성모니터와 함께]



[학회장 앞 잔디밭에서 여유로운 한 때]

학회 오후일정까지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은 코펜하겐의 관광지는 바로 니하운(Nyhavn) 운하였습니다. 연노란색, 하늘색, 연녹색 등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파스텔톤의 건물이 알록달록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눈을 호강시켰습니다. 게다가 운하에는 작은 배

들이 딱 분위기 좋게 정박해 있고 그런 모든 풍경을 바라보고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야외 레스토랑들이 누구나 꿈꾸던 유럽여행지의 평화로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곳 레스토랑 중 한곳에 자리를 잡아서 고심끝에 고른 메뉴가 바로 북유럽 사람들이 즐겨먹는다는 청어(Herring) 뷔페였는데, 기대와 달리 입맛에 아주 맞지는 않아서 한번 맛을 보았다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림같았던 니하운 운하의 모습]

셋째날은 아침 일찍 meet the expert에 참석하기로 되어있는 날이었습니다. 7시 30분이 시작이어서 서둘러 준비하고 숙소앞에서 버스를 기다렸는데 그날따라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 바로 옆에서 익숙한 학회가방을 매고 초초하게 기다리던 한 유럽의 여의사가 제안하여 같이 택시를 타고 겨우 맞추어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recalcitrant chronic urticaria 주제의 세션에 참석하였는데 헐레벌떡 뛰어 들어가보니 작은 토론회형식으로 책상이 '='자로 배열되어 있었고 열명 남짓 되는 다양한 인종의 참석자들이 아직은 어색한 분위기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얼른 빈 자리를 찾아 앉자마자 갑자기 발표자가 차례로 자기소개를 시켜 얼떨결에 한국에서 온 알레르기내과 의사로 간단한 제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후 연자가 자연스럽게 2015년 World Allergy Congress가 한국의 서울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아는 척을 해주어 짧은 홍보도 하고 훈훈한 분위기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의견이 오가는 와중에도 문득 그야말로 글로벌한 토론의 장 한가운데 같이 참석하여 그 열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이 밀려옴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티볼리 공원 내 레스토랑에서 Korean night 모임을 가졌습니다. 티볼리 공원은 안데르센이 동화의 영감을 얻기 위해 자주 찾은 곳으로 입구부터 동화의 상상력의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화려한 공작새가 풀밭을 아주 자유롭게 활보하고,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이 사람 사이를 친숙하게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부터 어릴 적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것만 같은 아담하고 예쁜 놀이기구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풍경에 시선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진 Korean night는 한국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잊고, 또 웃 사람과 아랫사람의 사이도 조금은 느슨해진 채로 즐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안데르센 동상이 티볼리 공원을 바라보는 모습과
공원 안을 여유롭게 노닐던 공작새]

해외학회의 의미를 세계 유명한 학자들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또 관심있는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데에 둘 수도 있겠지만, 예전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업데이트된 연구와 논문을 언제든지 접하고 공부할 수 있는 요즘의 시대에서는 어쩌면 딱딱한 병원 환경을 떠나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누고 세계 다양한 학자들의 공통된 고민에 공감하기도 하고, 열정적인 노력에 자극을 받기도 하면서 책이나 논문만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올해 초 경북대로 자리를 옮기고,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들과 얘기를 나누며, 그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환자 케이스에 대한 조언으로 ‘아하’ 머리를 치며 깨닫기도 하고, 돌아가서는 더 잘해보아야지 다짐하기도 하고, 또 비슷한 또래 동료들과는 같은 고민에 공감하며 서투른 저를 위로할 수도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